건강을 지키는 현장

"건강은 질병 예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농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지회 공제 사업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유도해 내는 것은 역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농민 복지의 실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농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제계약자 건강검사를 실시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농민을 위한 장학사업,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의, 전북도지회를 찾아가 이들의 검사사업 현황과 농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 농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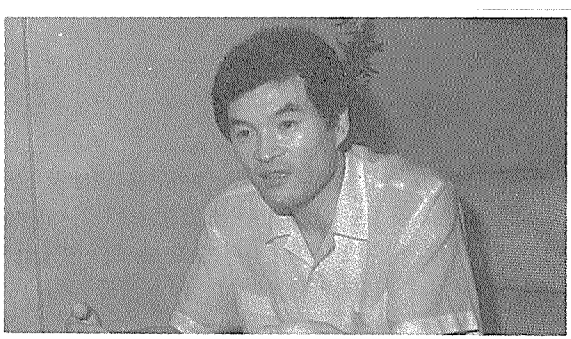
농협 공제계약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시작된 것은 '86년도부터 이다. 초창기 간염검사를 시작으로 했던 이 사업은 이제 간기능·심장·신장·자궁암 검사를 비롯해 총 20여종의 검사를 할 만큼 확대되었다.

『그동안 전라북도 내에서만 3만여명의 농민들에게 검사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올해만도 5천여명이 검사를 받았지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지회 공제과 노시준 과장의 이야기다.

그는 또, 『현재 농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 농민건강의 취약성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저희 농협에서 실시하는 공제계약자 건강검사 사업은 농민 건강 증진에 나름대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의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아주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공제계약자 건강검사 사업의 의의를 피력한다.

질병의 조기발견은 치료의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농협 전북도지회 노시준 과장은 강조한다.



○ 농민들의 반응도 긍정적

공제계약자 건강진단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 역시 아주 긍정적이다.

지난 '91년 5월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에서 공제계약자 건강진단을 받았던 양복덕씨(63세, 전주시 삼천동 함대부락 7)는 검사 결과 뜻밖에도 자궁암이라는 병을 발견했다.

『검사를 받기 전부터, 소변을 볼 때마다 좀 불편했었습니다. 약국에 갔었지만 신장이 안좋은 것 같다면서 약을 지어 주더군요. 형편상 병

건강을 지키는 현장

원에 가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농협 공제계약자 건강검사를 건협에서 받게 되었지요. 처음에 자궁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놀랐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했었죠. 곧 전주시내 산부인과에서 재검을 받은 후 치료를 했고, 이젠 다시 건강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회를 주신 농협과 건협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양씨는 검사를 받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설명한다.

농협 건강검사에서 자궁암을 발견, 이젠 건강을 되찾았다며 농협 전북도지회의 건강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양복덕씨.

○ 농민들의 건강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농협단위조합 강사로 일하고 있는 농민 신규환씨(48세.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역시 지난 해에 실시된 이 건강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한 경우.

『검사결과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소화도 잘 안되긴 했었습니다만 큰 병이야 있겠나 싶었는데……. 아뭏든 그후 좋아하던 술도 안먹고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재검을 받았는데, 이젠 괜찮다고 하더군요.』 신씨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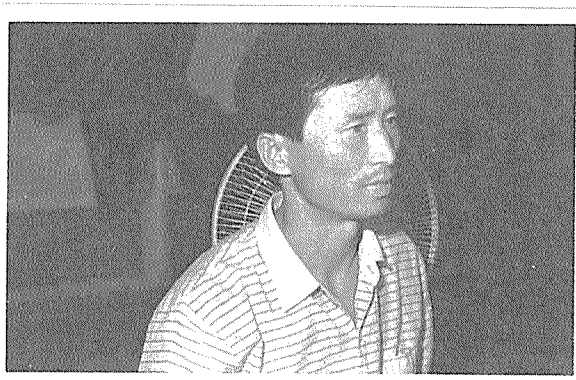
그는 또,『저는 이제 농협 공제계약자 건강검사와 건협의 홍보요원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라며,『농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농민 중의 많은 사람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농민들의 위장검사도 이런 검사사업에 포함되기만 한다면 농민 건강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라고 덧붙인다.

◎ 농민의 복지 측면도 생각하는 농협의 미래

농협이 농민을 위해 실시하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환원사업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전북도지회의 경우, 올해 1억8천여만원을 들여 장학사업을 벌였고, 농민들에게 비상약세트나 혈압기 같은 건강 관련 상품을 구입·배부하기도 했다.

한편 노시준 과장은 앞으로의 농협 공제사업의 청사진을 이렇게 밝힌다.

『일본 농협의 경우는 입원, 치료비에 재활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장기적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농촌 복지 차원에서 농민 휴양소 설립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협 전북도지회 공제계약자 건강검사를 통해 간기능 이상을 발견, 치료한 후 정기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신규환씨.

◎ 건협도 국민건강증진 위한 노력 더 많이 해달라

노과장은 또, 건협에 대해 『공익사업기관으로서 보다 친절하고 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는 애정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이처럼 살아있다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 취재를 마쳤다.